

# 인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5.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1
III. 정치·사회동향 .....	8
IV. 국제신인도 .....	11
V. 종합의견 .....	13

## I. 일반개황

면적	3,287천km <sup>2</sup>	GDP	15,963억 달러 (2010년)
인구	1,216백만 명 (2010년)	1인당 GDP	1,313달러 (2010년)
정치체제	내각책임제	통화단위	Rupee
대외정책	비동맹 중립	환율(달러당)	45.73 (2010년 평균)

- 인도는 서남아시아에 위치하여 동쪽으로 방글라데시, 미얀마 및 벵골만, 서쪽으로 파키스탄과 아라비아해, 북쪽으로 중국, 네팔 및 부탄, 남쪽으로 인도양과 접하고 있음.
- 인구는 세계 6분의 1인 12억명에 달하며, 인구의 80% 이상이 힌두교임.
- 1947년 8월 15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정부형태는 내각책임제로서 독립 이후 자립지향적 수입대체형 경제체제를 유지해왔으나, 1991년부터 자유화 정책을 채택, 경제개혁 및 대외개방을 추진해오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경기회복 가속화
  - 경제자유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높은 저축률(GDP의 34% 수준) 및 투자율(GDP의 36% 수준)을 기반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9% 이상의 고성장세를 지속함.
  - 2008년에는 세계 경기 침체로 경제성장률이 6.8%를 기록하며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09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로 전환됨.
  - 2008년 미국발 세계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세계경기의 영향을 덜 받았으며, 인도 정부의 시기적절한 경기부양정책에 따른 민간 소비 증가로 2009년에는 8%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sup>f</sup>
경제성장률	9.2	6.8	8.0	8.6	8.2
재정수지 / GDP	-2.6	-6.0	-6.5	-5.0	-4.9
소비자물가상승률	6.4	8.4	10.9	12.0	8.3

자료: IMF, EIU.

- 2010년에는 농업 생산의 증가와 산업생산 및 서비스 분야의 호조가 지속되어 경기가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경제성장률은 8.6%로 추정됨.
- 2011년에는 물가상승 압력에 따른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임금 상승 및 지방경제 성장에 따른 지역 소비 수요 증가 등을 중심으로 민간 소비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여 8%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물가상승 지속**

- 인도는 유가 상승, 식료품 가격 및 임금 인상, 가계부문의 소비 증가 등으로 2006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대 이상을 기록해 오고 있음.
-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루피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인도 정부가 공무원의 급여를 인상함에 따라 200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8.4%로 크게 상승하였음.
- 2009년에는 몬순시기의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농업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고, 세계경기 회복세에 따라 국제 상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소비자물가가 10.9%로 더욱 상승함.
- 2009년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정부의 통화완화정책으로 인한 저금리 기조 및 해외자본의 유입 확대가 2010년에는 제조업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며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2%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RBI)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통화완화정책에서 선회하여 정책금리인 리포금리와 역리포금리를 2010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인상하여 리포금리를 4.75%에서 6.25%로 역리포금리를 3.25%에서 5.25%로 인상한 바 있음.

- 이후 식료품 가격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물가 불안이 가중되어 2011년 1월과 3월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으며, 금리 인상에도 물가가 상승세를 지속하자 5월 초 금융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를 그동안의 인상폭인 25bp보다 큰 50bp를 인상하였음. 2011년 5월 현재 리포금리는 7.25%, 역리포금리는 6.25%임.
- 물가 불안이 지속되면서 연중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며, 2011년 중 물가는 8%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 세수입 증가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 감소

- 비효율적인 조세제도 및 낮은 소득세 징수율로 인한 세수 부족, 선심성 정책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인도의 재정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지속적인 정부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재정수지 적자가 2007년 GDP의 2.6%까지 축소되었으나, 2008년에는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세수 감소, 물가 안정을 위한 수입세 인하, 공공 부문 임금 인상 등 경기 부양책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6%로 확대됨.
- 2009년에는 5월 총선에 따른 선심성 정부지출 증가, 물품세 및 관세 징수액 감소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6.5%로 더욱 확대되었음.
- 그러나 2010년에는 빠른 경기 회복과 간접세 축소 정책 폐지에 따른 세수입 증가 그리고 3G 이동통신 및 무선 브로드밴드 사업자 선정 등을 통한 재정수입 확보로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목표치인 GDP 대비 5.5%를 하회하는 5%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됨.
- 인도 정부는 2011년 재정적자 규모를 GDP 대비 4.6%로 축소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물가 상승 지속에 따라 연료, 비료, 식료품 보조금이 증액될 경우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목표치를 상회하는 것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임.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열악한 인프라로 인한 경제성장 제약

- 전력, 도로, 항만, 통신 등의 열악한 인프라로 매년 인도경제성장률의 1~2%포인트가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인도의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열악한 교통으로 식료품 배송이 지연되고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식료품 물가상승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인도정부는 인프라개발을 위하여 약 1조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인프라 펀드를 조성하는 등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및 민간자본조달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중임.

#### □ 만연된 관료주의로 행정에 많은 시간 소요

- 인도는 심각한 관료주의와 복잡한 행정업무로 행정 효율성이 낮으며, 특히 지방정부의 힘이 커서 중앙 정부에서 승인한 사항이라도 지방정부의 반대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사업개시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사업 개시후에도 세무, 노동문제 발생의 경우 해결이 어려운 상황임.

### 나. 성장 잠재력

#### □ 12억 명에 달하는 거대한 내수시장 보유

- 인도는 1991년 외국인투자 자유화, 무역장벽의 완화, 대외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후 연평균 5~8%대의고성장을 이루었으며, 외국인투자 유입 규모도 국제기준으로 집계하기 시작한 2000/01년 40억 달러에서 2009/10년 378억 달러로 급증하였음.
- 이러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의 규모가 2009년 말 기준 6,000만 명으로 추정되며, 최근 인도정부가 농촌거주자들의

고용보장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농촌 저소득층 비율이 감소하고 신규 중산층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향후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 세계적인 수준의 IT산업

- 인도의 산업별 비중을 보면, 2010년 기준 농업 16.1%, 제조업 28.5%, 서비스업 55.4%로 서비스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산업 중 IT산업이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수준임.
- 영어 구사능력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과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IT산업 지원정책 외에 미국 및 유럽과의 시차를 이용하여 인도의 IT기술을 바탕으로 컴퓨터프로그래밍, 콜센터 등 글로벌 아웃소싱이 증가하고 있음.

### 다. 정책성과

#### □ 개방 및 개혁정책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 지향

- 국민회의당(Indian National Congress; INC)을 중심으로 한 통일진보 연합(United Progressive Alliance; UPA)은 2004년 5월 집권시 사회적 화합의 증진, 경제성장 지속, 농민 및 노동자들의 삶의 질향상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경제계획(Common Minimum Program)을 수립·발표하고, 경제개혁을 통해 공동경제계획의 목표대로 2004년 5월부터 2009년 4월 집권 1기 동안 평균 8.5%의 고성장을 기록하였음.
- 2009년 5월 총선에서 UPA가 압도적인 승리를 함에 따라 포괄적인 성장정책기조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어 좌파정권의 반대로 지연되었던 산업 개방 정책, 노동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음.
- 그러나 최근 2008년 2세대 통신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부정부패 사건 등으로 인한 UPA에 대한 지지도 하락과 개혁 정책에 대한 연정내 이견 등으로 보험업, 대형 소매유통업 등의 개방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는 등 개방, 개혁정책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재정정책

- UPA정부는 2009년까지 재정수지적자를 완전 해소한다는 목표아래 세계 개혁을 통한 세원확대와 경기활성화에 따른 세수확대를 추진하였으나,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인하하는 감세정책과 수출 진흥 및 중소기업, 영세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2009년 총선에 따른 선심성 정부지출 증가 등으로 2007년 2.6%까지 축소되었던 재정수지 적자폭이 2009년 6.5%까지 다시 확대되었음.
- 그러나 인도정부는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다시 환원하고, 석유 수입관세를 재인상하는 등 경기부양책을 일부 철회하는 한편 공기업지분 매각 등을 통해 재정수지적자 축소에 노력하여 2010년 재정수지적자 규모는 목표치인 GDP 대비 5.5%를 하회한 5%로 추정되고 있음.
- 인도정부는 2010년 4월중 3G 이동통신 주파수와 무선 브로드밴드 사업권 입찰로 예상가인 3,500억 루피보다 3배 이상의 금액인 1조 1,000억 루피(약 235억달러)를 벌어들였으며 이는 2010/11회계연도 중 재정수지적자폭 축소에 크게 기여함.

## 3. 대외거래

### □ 경기회복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폭 확대

- 인도의 상품수지는 최근 고성장에 따른 수입수요 증대, 점진적 무역자유화 등으로 인한 수입 증가, 상품수입의 약 1/3을 차지하는 석유의 가격 상승 등으로 적자폭이 확대되어 왔음.
- 2008년 말부터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투자 위축 및 소비수요의 감소 등으로 수입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남에 따라 상품수지 적자가 2008년 923억 달러에서 2009년 788억 달러로 축소됨.
- 2010년 중에는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석유제품, 보석류, 섬유 등의 수출 호조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국제유가 상승 및 국내 수요 확대에 따른 수입 증가로 수입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남에 따라 상품수지 적자폭이 다시 1,336억 달러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lt;표 2&gt;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sup>f</sup>
경상수지	-8,076	-30,953	-26,626	-51,781	-63,950
경상수지/GDP	-0.7	-2.5	-2.0	-3.1	-3.3
상품수지	-54,827	-92,361	-78,816	-133,616	-160,674
수출	153,784	198,598	168,223	225,423	265,914
수입	208,611	290,959	247,040	359,039	426,588
외환보유액	266,553	246,603	258,583	267,814	274,330
총외채잔액	204,992	230,611	225,607	242,686	260,638
총외채잔액/GDP	17.3	18.3	17.4	14.6	13.5
D S R	13.4	8.4	11.0	8.0	6.9

자료: IFS, EIU.

## □ 국내 수요 확대 및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 상품수지 적자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지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고 해외근로자 송금 또한 소폭 증가하여 2009년 경상수지 적자는 2008년 309억 달러에서 266억 달러로 감소함.(GDP 대비 2.5%에서 2%로 축소)
- 2010년에는 상품수지 적자폭 확대와 더불어 경기 회복에 따른 운송, 금융 서비스 등에 대한 비용 지급 증가에 따른 서비스수지 흑자 감소로 경상수지 적자폭이 GDP 대비 3.1%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 2011년에도 수입 물가 상승 지속으로 상품수지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경상수지도 GDP 대비 3.3%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 포트폴리오투자 중심의 외국인 자본 유입 급증

- 인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 등 ICT산업에 대한 투자위주로 이루어져 옴.
- 2010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한 한편 인도의 조기금리 인상과 높은 경제성장률에 따라 외국인 포트폴리오투자가 강세를 나타냄.



-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가 부진한 원인으로 토지 수용 문제, 환경관련 규제와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 지방정부의 반대 등으로 투자 사업 진행에 장시간 소요되는 점과 소매유통업, 보험업과 같은 산업에 대한 개방, 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음.
  - 포스코의 인도 오릿사(Orissa)주 내 일관제철소 건립도 환경부 승인을 받기까지 6년이 소요됨.
- 2010년 중 월별 큰 변동성을 보인 외국인 포트폴리오투자액은 2010년 10월 중 국유 에너지회사인 콜 인디아(Coal India)와 전력사인 파워그리드(Power Grid Corp.) 등의 기업공개 성공으로 286억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하기도 하였음.
-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348억달러(2007/08년)→378억달러(2008/09년)→378억달러(2009/10년)→270억달러(2010/11년)
- \* 외국인포트폴리오투자 순유입액: 203억달러(2007/08년)→△150억달러(2008/09년)→290억달러(2009/10년)→294억달러(2010/11년)

### Ⅲ. 정치·사회동향

#### 1. 정치안정

##### □ UPA 연합의 재집권 후 경기 부양에 성공

- 소니아 간디 UPA 연합 의장 및 만모한 싱 총리 등 지도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UPA 정부의 정책 및 업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등으로 2009년 4~5월간 실시된 제15대 총선에서 국민의회당 중심의 UPA 연합이 압승을 거둬서 재집권에 성공하였음.
-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절한 경기부양책 실시로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 받고 있음.

##### □ 집권 여당내 부정부패 스캔들로 현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

- 2010년 11월 인도 감사원에 의해 2008년 2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입찰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의 부적격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으로 국고에 400억

달러 상당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밝혀지면서 통신부 장관이 사임하는 등 2010년 연이어 발생한 부정부패 스캔들로 연합 정권내 갈등을 빚음.

- 2세대 이동통신 관련 사건 조사를 위한 의회 합동위원회 구성여부를 두고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맘모한 싱 총리가 연정 유지를 위해 UPA 연합의 DMK당 소속인 안티무트 라자 (Andimuthu Raja) 전 통신부 장관의 무혐의를 주장해 왔으나 야당의 비판이 싱 총리로 집중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최근 구속 수사에 대해 용인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연정 유지에 갈등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단기적으로는 연정내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이나, 2014년 총선까지는 UPA 연합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 다양성을 포용하는 문화

- 다양한 종교, 민족, 언어 등이 공존하는 등 복잡한 사회구조를 보이며, 지역간 경제발전 및 소득격차가 매우 커서 지역간 불균형을 보이고 최근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라 계층간 빈부격차 또한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1950년 공식적으로 철폐된 카스트 제도가 사회 전반에 걸쳐 인도인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주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구조를 보이는 인도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또한 일반화 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의식과 인내와 관용의 국민성 또한 인도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구조를 포용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 공산반군 및 분리주의자들에 의한 빈번한 폭력사태 발생

- 인도 중동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낙살라이트(Naxalite)로 불리는 인도 마오주의 공산반군들의 폭력사태가 자주 발생함.

- 마오주의 공산반군들이 인도에서 빈곤한 지역을 위주로 활동하면서 지역 간 경제격차 확대로 빈곤층 주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지는 등 중앙정부의 통제가 더욱 어려워짐.

### 3. 국제관계

#### □ 실용주의적 대외관계 노선 추구

- 인도는 국제 사회로부터 받는 관심을 실리 위주로 최대한 활용하고자 모든 국가와 균형을 유지하며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실용주의적 대외 관계 노선을 추구하고 있음.
- 일본, 독일, 브라질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공동 협력하고 있으며, 남아시아지역협력체(SAARC)의 주도적인 국가로 활동하고, 주요 강대국들과의 협력체 및 신흥개도국들과의 협력체 등 다양한 협력 기구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적인 위상 강화에 노력하고 있음.

#### □ 파키스탄과의 대화 움직임

- 1947년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금까지 힌두교와 이슬람교라는 종교 문제 및 카슈미르 지역의 영유권 문제로 3차례의 전쟁을 포함하여 잦은 분쟁을 겪어 왔음.
- 2006년 7월 뭄바이열차 연쇄폭탄테러 이후 같은 해 11월 양국 정상 회담으로 대테러 협력방안에 협의하는 등 관계 개선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나 2008년 11월 또다시 뭄바이 테러 사건이 발생하여 양국 관계가 최근까지 냉각 상태를 유지해 왔음.
- 2009년 7월에 양국간 포괄적 대화가 재개되면서 뭄바이 테러 공동조사 합의와 테러 대응 공조에 합의하였으며, 2010년 4월 부탄에서 개최된 SAARC 정상회의시 양국 정상이 관계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양국간 관계 개선이 기대되었으나, 7월 중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반정부 무슬림 시위대와 인도군의 충돌로 사망자가 속출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양국간 관계 개선은 답보 상태를 지속해 옴.
- 2011년 2월 초 양국 외무장관이 평화 정착을 위해 모든 현안에 대해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하는 등 또 다시 평화협상 재개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

## □ 중국과 정치적 긴장관계 및 경제적 실리 추구 병행 지속

- 2,000km의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중국과는 분쟁지역이 125,000km<sup>2</sup>에 달해 양국간 국경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 2010년 중국이 양국간 영토분쟁지역인 아루나찰프라데시와 잠무-카슈미르 주민에게 정식 비자가 아닌 여행증명서 형태의 비자를 발급하는 한편 인도는 중국 노동자를 단속하기 위해 근로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중국이 티베트 지역내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다시 양국간 관계가 긴장 관계에 놓임.
- 그러나 양국간 교역량 확대로 경제 협력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0년 12월 중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인도 순방시 양국간 기업들이 160억 달러에 달하는 47건의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치적 긴장 관계 속에서 실리적인 측면에서는 경제 협력 관계를 병행하는 양상을 보임.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인도는 대외채무와 관련 리스케줄링한 바가 없으며, GDP 대비 총외채잔액 또한 20% 이내를 유지하고 있고 외환보유액 또한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에 이어 세계 5위 규모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외채상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2. 국제시장평가

####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 현황

- S&P, Moody's, Fitch 등 주요 신용도 평가기관이 모두 인도에 대해 투자적격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 Moody's는 2004년 1월에 인도의 외화표시 장기채권 등급을 Baa3로 상향조정하였고, Fitch와 S&P도 각각 2006년 8월과 2007년 1월에 BBB-로 상향 조정한 후 등급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임.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B2(Stable) (2011. 3.)	B2 (2010. 2.)
OECD	3등급 (2011. 3.)	3등급 (2010. 4.)
S&P	BBB-(Stable) (2010. 3.)	BBB-(Negative) (2009. 2.)
Moody's	Baa3(Stable) (2011. 2.)	Baa3(Stable) (2010. 7.)
Fitch	BBB-(Stable) (2010. 6.)	BBB-(Stable) (2010. 2.)

□ 주요ECA의 지원태도

- 미국수은: 전액인수가능
- 영국ECGD: 전액인수가능
- Euler Hermes: 단기전액인수가능
- 네덜란드 Atradius: 전액인수가능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73년 12월10일(북한과는 1973년 12월 10일)

□ 주요협정: 무역경제기술협력협정(1974년), 과학기술협력협정(1976년), 이중과세방지협약(1985년), 투자보장협정(1996년), 세관분야협력협정(2006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2009년 체결, 2010년 1월 발효)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인도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대 인도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8,977,063	8,013,290	11,434,596	기계·컴퓨터, 전기제품, 철강, 자동차
수 입	6,581,241	4,141,622	5,674,456	석유·석탄, 철강, 면직물
합 계	15,558,304	12,154,912	17,109,052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10년 기준 인도는 우리나라의 제7위 수출 대상국으로, 인도와의 교역규모는 2008년 156억 달러에서 세계경기 침체로 2009년 122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경기회복 및 인도 경제의 호조로 171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

- 우리나라의 대 인도 해외직접투자는 2010년 12월말 현재 자동차와 철강 등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551건(신규법인 수 기준), 19억 7,804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V. 종합 의견

- 지속적인 경제자유화 정책과 높은 저축률 및 투자율을 기반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9% 이상의 고성장세를 지속하던 인도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008년 경제성장률이 6.8%로 둔화되었으나 인도 정부의 시기적절한 경기부양정책에 따른 민간 소비 증가로 2009년 8%의 양호한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2010년에는 농업 생산 증가와 산업생산 및 서비스 분야의 호조가 지속되어 8.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2009년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정부의 통화완화정책으로 인한 저금리 기조 및 고성장세에 따른 해외자본의 유입 확대가 2010년에는 제조업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2%로 추정되는 등 인플레이션이 심화됨에 따라 높은 물가가 인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2010년 3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등 물가 안정에 노력하고 있음.
- 비효율적인 조세제도 및 낮은 소득세 징수율, 선심성 정책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겪는 인도는 2010년에는 경기 호조 및 간접세 축소 정책 폐지에 따른 세수입 증가와 3G 이동통신 및 무선 브로드밴드 사업자 선정 등을 통한 재정수입 확보로 재정수지 적자가 목표치인 GDP 대비 5.5%를 하회하는 5%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됨.
- 인도의 상품수지는 높은 경제성장에 따른 수입수요 증대, 유가 상승, 점진적 무역 자유화 등으로 수입액이 증가하여 상품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어 왔으며, 2010년 중에는 국내 수요 확대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수입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남에 따라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었음.
- 열악한 인프라와 관료주의 등에 따른 행정 비효율성이 경제 구조의 취약성으로 꼽히며 12억 명에 달하는 거대 내수 시장과 세계 수준의 IT산업은 경제성장의 잠재요소임.

- 2009년 5월 총선에서의 UPA의 승리로 맘모한 싱(Manmohan Singh) 총리가 재취임한 후 인도 경제가 고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싱 총리를 중심으로 한 집권여당에 대한 경제적 성과는 높이 평가되고 있으나 2010년 중 연이어 발생한 부정부패 스캔들로 연합 정권내 갈등이 야기되고 생필품 가격 급등으로 국민들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맘모한 싱 정권의 정치적 기반이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인도의 총외채 규모는 증가 추세이나 GDP 대비 총외채잔액이 20% 이내를 유지하고 있고 외환보유액이 전세계 5위 규모로 외채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책임조사역 이 진 경 (☎02-3779-5704)  
E-mail: jinkyung22@koreaexim.go.kr